



### 시선집중

보행 암초 '자전거 경사로'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

### 테마기획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어떤 일을 할까요?

### 인 터 뷰

시각장애인 최초의 국비유학생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 서주영 님

### 포커스

듣고 체험하는 국회  
시각장애인 국회 참관 해설 프로그램



02 | 목차

03 | 점자로 말해요 - 수박

04 | 시선집중 - 보행 압초 '자전거 경사로'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 / 이진원(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 팀장)

06 | 테마기획 - 장애인의 생활을 돕는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어떤 일을 할까요?

08 | 인터뷰 - 시각장애인 최초의 국비유학생, 펜실베니아주립대학 서주영 님

10 | 포커스 - 듣고 체험하는 국회, 시각장애인 국회 참관 해설 프로그램

12 | 함께 사는 이야기 - 감자인심 / 이진규(시각1급\_서울특별시 관악구)

13 | 월드 리포트 - 영국 택시 기사, 종교적 이유로 안내견 탑승 거부 - 시각장애인 아빠 출근길 함께하는 필리핀 소녀

14 | 뉴스앨범 - 열정과 패기 가득한 시각장애 청년들, 희망캠프로 만나 - 수상스키로 더위를 물리쳐요! -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2016 시각장애인 여름가족캠프 - 나만의 향수, 석고 방향제 만들기!

16 |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 시각장애인에게 의자를 권할 때



시각장애인연합회 KOREA BLIND UNION

손으로보는세상 2016년 8월 193호

발행일 2016년 8월 15일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이병돈 편집 김민지  
주소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T 02,799,1043 F 02,6925,1117

홈페이지 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한국오티 02,867,1921 캘리 모노D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원두막에 앉아  
나누어 먹는 수박은 삼복더위를 잊게 만드는데요.

### 수박은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① ④  
② ⑤  
③ ⑥

점자일람표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된소리
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ㅙ	ㅚ	ㅜ	ㅠ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ㅑ	ㅓ	ㅕ	
약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억	언	얼	연
	열	영	옥	온	웅	운	울	은	을	인	것	쌍받침			
약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고		그리하여		
숫자	수표	1	2	3	4	5	6	7	8	9	0				
문장부호	.	?	!	,	-	~	.	"	"	'	'				
	:	:	줄임표(...)												
영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영어시작	끝	대문자	

[나, 다, 마, 바, 자, 가,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사, 지, 초, 쓰, 짜] 다음에 약자 '영'이 올때는 '영'으로 바뀐다.



## 보행 암초 ‘자전거 경사로’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

이진원(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 팀장)

보통 장애인계에서 말하는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취약 계층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건축물, 교통수단, 도로, 정보통신망 등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시설이라 한다. 관련 법률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는 편의 시설을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 정의하였다. 즉 편의 시설은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접근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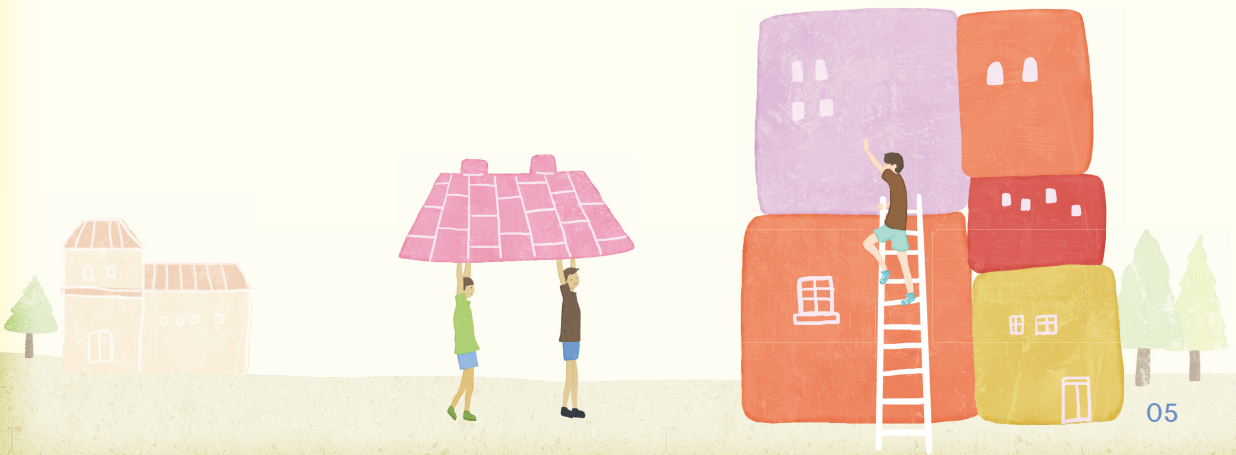
대표적인 편의시설로는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승강기, 경사로 등이 있으며 이들은 건물이나 시설에 설치되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자전거 경사로라는 시설이 일부 지하철역 계단에서 발견되더니 최근 들어 시각장애인 보행권 침해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자전거 경사로는 어떤 시설일까?

자전거 경사로란 육교나 지하도에서 자전거를 쉽게 올리고 내릴 수 있도록 계단 일부에 자전거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설치한 경사로를 뜻하는 것이다. 설치 방법은 자전거 설계 외형을 감안하여 이용에 따른 불편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계단측벽에서부터 35cm 이상 공간을 할애해야 하며, 자전거 페달이 걸리지 않도록 경사로의 높이 차이를 7.5cm~10cm로 하도록 한다. 계단 중앙에 설치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폭과 높이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다시 말해 기존의 계단 중 통행할 수 있는 폭이 감소한 것이고 더욱이 계단 손잡이 아래 부분은 통행할 수 없는 지경이란 것이다. 가령 이 시설이 시각장애인이 자주 통행하는 곳에 설치되었다고 가정해보자. 흰지팡이로 독립 보행하는 시각장애인이 계단을 인지하고 손잡이를 잡고 내려가려는 순간, 손잡이 하부에 있는 자전거 경사로 턱에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다. 운이 좋게 발이 걸리지 않더라도 발을 짚을 때 자전거 경사로로 인해 헛짚거나 발목이 꺾여 실족하는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인 것이다. 이런 대책 없는 시설이 어떤 연유로 설치된 것일까?

지난 2010년부터, 안전행정부(지금의 행정자치부)에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육교나 지하도 등에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 발표하였고, 서울특별시 등 지자체에서도 이 행정지침을 기반으로 각 도시마다 매뉴얼이나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하게 이르렀다. 현재 자전거 경사로는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등 대도시 128개 지하철역사에 설치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민원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민원뿐만 아니라 노약자의 민원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유인즉 자전거 경사로 때문에 계단 손잡이를 편하게 잡고 갈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도 동 시설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보도 자료를 작성하고자 자료 수집 차 경사로는 설치되어 있는 여의도역에 가보았다. 실제로 정말 위험할 뿐 아니라 실제 자전거 경사로는 설치되어 있는 곳에 손잡이를 잡기 위해서는 자세가 어정쩡해져서 극심한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계단 옆 경사로는 자전거 길? 일산역서 막힌 두 바퀴 천국’이라는 기사를 검색할 수 있었는데 내용은 자전거 경사로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내용이었다. 다시 말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시설이 우리나라 정부, 그것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앙행정부서의 지침에 담게 되었는지 참으로 아이러니하며 과연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지침에 보행약자에 대한 배려나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하는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 부디 자전거 사용자 입장뿐 만 아니라 보행약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모두가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 포커스를 넓혀 이와 같은 모순이 없길 기대해 본다.





## 장애인의 생활을 돕는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어떤 일을 할까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돕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인데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최종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1~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할 경우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 갱신만 가능)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활동지원 제도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후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결정 받은 후 이용이 가능하며, 방문조사 시 직원이 신청인에 대하여 신체, 정신적 기능상태 및 서비스 욕구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인정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활동지원 인정 조사표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인정점수를 산정하고 활동지원 등급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활동지원급여 내용으로는 활동보조인이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가 있으며 요양보호사가 목욕 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목욕이 있습니다. 또한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문 간호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주로 사회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활동지원 등급 재심사 결과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은 다른 15가지 장애유형과 비교해 서비스 등급 하락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인정조사표가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요.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를 통해 자유로운 외출과 교육, 일상생활, 정보 습득, 직업 생활 등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했던 시각장애인들은 활동지원 등급 하락과 함께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등과의 면담을 통해 이와 같은 상황을 전달하고 면담을 통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인데요, 부디 활동지원 제도와 관련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시각장애인들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 시각장애인 최초의 국비유학생, 펜실베니아주립대학 서주영 님

국가에서 해외유학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비유학제도인데요.

미래성장동력연구분야에서 최고 득점으로 국비유학생에 선발된  
서주영 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펜실베니아주립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마치  
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을 전공하셨는지요?

한국의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사과정을 하면서 교육학과  
영어영문학을 복수 전공했고, 펜실베니아주립대학에서는  
제가 학사 때 전공한 것을 토대로 교육공학을 전공하였습  
니다.

**교육공학이라는 분야가 조금 생소한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공학을 이곳에서는 LDT(Learning Design and  
Technology)라고 부르는데요,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교육  
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연구하는 것입  
니다. 특히 신교육공학에서는 내용은 모바일 디바이스, 3D  
프린팅 등 신교육 기술들을 이용해 학생이 학습의 내용을  
최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  
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처음 미국에서 유학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갖게 되셨나요?**

어릴 때부터 유학에 대한 꿈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구체화 된 것은 저에게 몇 번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였는데요. 유학 전 미국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4번 정도 있었어요.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 정인욱 복지재단의 후원으로 미국에 연수를 갔던 것도 계기 중 하나였죠. 이러한 기회를 통해 미국의 문화와 환경을 접하고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국비유학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을까요?**

찾아보면 유학을 지원해주는 다양한 제도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제도들이 유학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했고, 제가 처한 시기적 상황과는 맞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국립국제교육원의 국비유학제도를 알게 되었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이 국비유학 제도는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이 있는데 특별전형에는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만 포함될 뿐 시각장애인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반전형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경쟁을 하게 되었죠. 결과적으로는 제가 선발이 되긴 했지만 넓은 측면으로 바라볼 때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국비유학생 신청 시 필요한 토익 점수 등을 비장애인은 12회에서 14회 치를 수 있는데 반해 시각장애인은 1년에 2회의 시험 밖에 볼 수가 없는데(점자토익은 1년에 2번 시험이 있음) 함께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 평등하다고 생각되지 않았거든요.

**국비유학생에 선발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의지였던 것 같아요. 유학을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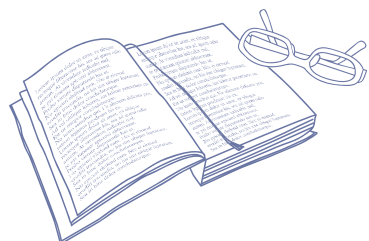
절박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면접에서 최선을 다해 제가 왜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되어야 하는지를 피력했죠. 국비유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 수집했던 것도 선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서주영 님과 같이 국비유학을 준비하는 분께 참고가 되도록 국비유학제도에 대해 설명해주시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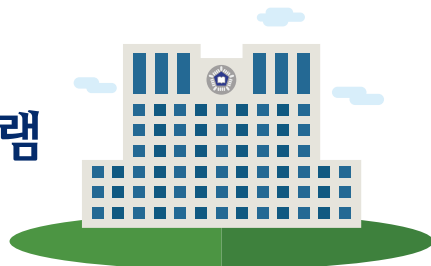
국비유학제도는 평생 1번만 지원 가능한 제도입니다. 외국에서 석·박사를 취득하기 원하는 지원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죠. 선발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시험으로 나뉘는데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공고에 부합하는 외국어 시험 기준 점수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4급 이상의 급수를 획득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이제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에 들어가신다고 들었는데요. 박사과정 이후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사과정 이후에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구체적으로는 교수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연구한 것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흘려보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논문도 쓰고 연구도 부지런히 하고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쌓아야겠죠. 앞으로 연구소나 관련 기업 등과 접촉하며 연구자로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경험을 찾기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 듣고 체험하는 국회, 시각장애인 국회 참관 해설 프로그램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는 생생한 국회,  
시각장애인을 위한 국회 참관 해설 프로그램에서 만나보세요!

지난 7월 25일, 국회에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첫 국회 참관 해설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 접수한 시각장애인 5명과 안내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요, 첫 번째 프로그램은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참관해설사의 설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참관해설사는 국회가 하는 일, 국회의장의 역할 등에 대해 참관객들에게 설명했으며, 참관객은 자신이 관심 있었던 국회의원의 자리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 본회의장의 구성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등을 물어보며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헌정기념관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된 두 번째 프로그램에서는 축소된 국회의 모형, 의사봉, 속기 타자기 등을 만져보며 국회를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는데요. 특히 이 시간에는 시각장애인 최초의 국회의원인 정화원 의원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시각장애인 참관객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국회 참관 해설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것은 참관객이 직접 국회의원이 되어 직접 법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의정체험이었는데요. 참관객들은 국회의원이 제출한 4개의 법률안 중 투표를 통해 본 회의에 상정할 법률안을 고르고 찬반토론을 벌였습니다. 토론 후에는 의자에 설치된 '찬성', '반대' 버튼을 눌러 직접 법률안을 처리하며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는 이번 참관 해설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 등을 개선해 향후 시각장애인 참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앞서 점자 안내책은 참관 접수처와 방문자센터에 비치해 시각장애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감자인심 이진규(시각1급\_서울특별시 관악구)

내 고향은 강원도 영월에서도 한참 들어간 해발 700m에 달하는 두메산골이다. 온통 산으로 에둘러진 그곳은 논은 겨바늘 없고 비탈진 계단식 밭이 대부분이었다. 밭에서 얻을 수 있는 작물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감자의 소출이 늘 으뜸이었으므로 감자가 가장 즐겨 심는 작물이었다.

하지도 지나 7월 초순이면 온 고을이 감자 꽃으로 덮이고, 여름도 한물 깊어지는 7월 하순에는 집집마다 감자를 보통 열 지게 이상씩 캐들었으니 광에서 인심 난다는 속담처럼 내 고향 그곳에서는 그 넉넉한 수확만큼이나 감자 인심이 정말 후했다.

단위면적 당 수확량이 가장 높다는 감자의 원래 고향은 남미의 안데스, 그 감자가 대체로 고지대인 강원도로 이사 하면서 기온이 고 토질이고 제대로 궁합이 맞는 땅을 만난 것인데, 그것이 감자의 복인지 강원도의 복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땅에서 자갈만 대충 걷어내고 씨를 박아놓은 다음 서너 달만 잊고 지내면 어느새 토굴 안에다 큼직한 감자들을 한 구덩이 그득 모아놓고 주인 손을 기다려주는 감자라니! 이보다 착하고 기특한 효자 물건이 또 있겠는가. 동강 상류 지류인 그곳 강변에는 자갈도 많았는데, 그래서 나온 말이 온 골짜기가 '자갈 반 감자 반'이란 우스갯소리도 있었다. 산자락을 야금야금 타고 올라가 나무들의 영토까지 마구 점령한 감자들의 그 역센 생명력 덕에 굵어죽었다는 뉴스를 곧잘 접하던 그 시절에도 내 고향에서는 배꼽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없었으니 감자만큼 고마운 일등공신이 달리 없는 것이다.

요즘 같으면 감자 한 톨인들 누가 거저 주겠나만 내 고향 그 산촌에서는 감자라는 물건은 그저 이웃 간에 나누어 먹는 먹거리 정도로 인식할 뿐, 감자는 결코 팔고 사는 매물로 치지도 않았다. 5일마다 서는 5일장에도 감자를 파는 집은 없었고, 밤이면 동네 청년들이 모여서 참외서리, 수박서리, 닭서리, 콩서리는 해먹어도 감자서리는 할 필요가 없었던 거다. 먹거리가 가장 궁핍한 여름철을 일러 보릿고개라고들 하나, 그 고장에서는 감자란 놈이 딱하니 버티어준 바람에 그런 말조차 모르고 살았으니, 감자 덕을 톡톡히 본 셈이라서 지금도 감자를 대하면 친근감이 들고 은근히 마음이 끌린다. 쌀이 귀한 그곳에서는 감자가 주식이다시피 했으므로 여름부터 가을까지 점심 요기는 주로 찐 감자나 삶은 옥수수로

때우기 일쑤였고, 아침밥에도 감자 한두 개는 얹혀 있기 마련이었다. 감자를 써서 만드는 간식거리는 엄청나게 다종다양하나, 그 부분은 독자들이 익히 알고 있다 싶어 생략 하거니와, 다만 덧붙일 것은 호박잎에 고추장을 발라 찐 감자를 싸먹던 그 맛을 나는 여태 잊지 못해 지금도 가끔 흥내를 내보곤 하지만 장의 문제인지, 호박잎의 문제인지 '그때 그 맛을 도무지 느낄 수 없어 결국 세월 탓으로 돌리고 만다. 한 시절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기껏 촌민들의 사랑이나 누리며 최하급 촌뜨기 신세에 불과하던 감자 요것이 근래에 와서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더니 얼마나 고속 신분상승을 했던지 요즈막에는 얇은 지갑을 들고 고것을 대하려면 자못 황궁스럽기까지 하다.

한때 한 고을에서 손만 내밀면 거저 내 것이 되던 고 것이 전국적 스타가 되면서 이제는 이질감마저 느껴진다. 아니, 그러다가도 은근히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드는 건 아무래도 가난하던 시절에 그것과 나 사이에 쌓인 정 탓이겠지. 아무튼 세월은 신비로운 조화를 부리는 미술사인 듯싶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원도 사람을 가리켜 '감자바우, 또는 암하노불'이라 부르며 조금 알잡아보는 의미로 놀리곤 하는데, '감자바우'란 의미는 감자처럼 바위처럼 투박하고 우둔해 보인다는 뜻일 테고, 암하노불이란 의미는 바위 밑에 앉아 즐고 있는 늙은 부처란 뜻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또한 비하하는 의미가 아닐 수 없다.

결국 강원도 사람들은 대체로 좀 약빠르지 못하고, 순박해 보이면서도 얼떠보이고, 세상 물정에 다소 어두워 보이는 사람이란 의미로 쓰는 듯하나, 내 천성이 그 비슷하게 생겨 먹어서인지 나는 그 말에 조금도 거부감이 없다.

'가마가 검기로 밥도 검을까'란 속담이 있지 않던가. 그렇다, 그저 감자 먹고 감자처럼 울퉁불퉁 투박한 사람들과 산과 밤나무와 멧돼지와 시냇물과 땀방울과 땀방울과 땀방울과 앞집 영이와 봉걸이 아저씨와 한 고을 한 식구처럼 어우러져 살던 곳. 이제 그곳에는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만 남아 나를 부를 뿐인데...

암꿍 알 품어 울어대고 감자 꽃도 한 물 지는 날, 나 빈 광주리 들고 돌아가 그들 앞에 불쑥 내밀려니 그 큰 손으로 인심 한 광주리 땀뭍 주시려나, 주시려나, 그날처럼 주시려나.

## 영국 택시 기사, 종교적 이유로 안내견 탑승 거부

영국의 시각장애 커플이 종교적 이유로 안내견과 함께 택시 탑승을 거부당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있던 찰스와 제시가 커플은 안내견을 데리고 택시에 탑승하려했으나 택시 운전자에게 자신이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개를 택시에 태울 수 없다”는 대답을 듣게 되었는데요. 찰스는 “어느 택시기사도 안내견 탑승을 거부할 수 없다”며 태워줄 것을 요구했지만 운전기사는 다른 택시를 불러주겠다고 무전을 취했습니다.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은 온라인에서 공개되어 수백 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이를 접한 택시 업체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 시각장애인 아빠 출근길 함께하는 필리핀 소녀

시각장애인인 아빠를 매일 아침 일터로 데려다 주는 5살 필리핀 소녀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누리꾼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영상의 주인공은 필리핀에 사는 넬슨 페씨와 그의 딸 제니인데요. 넬슨 페씨는 코코넛나무 숲에서 일하며 매일 60여 그루의 코코넛나무에 올라가 열매를 따 돈을 벌고 있습니다. 넬슨 페씨가 하루에 버는 돈은 300페소(약 7300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상을 접한 각계각층에서는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방송사에서는 재단을 통해 넬슨 페씨에게 금전적인 지원과 함께 생계를 위한 직업훈련을 받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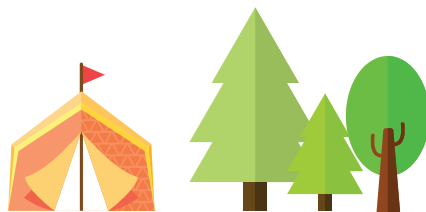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NEWS

## 열정과 패기 가득한 시각장애 청년들, 희망캠프로 만나

7월 21일부터 7월 22일까지 가평에서 진행된 2016 시각장애 청년 희망캠프를 통해 시각장애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전국에서 신청한 20~40대의 시각장애 청년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첫째 날에는 에니어그램(성격유형지표)을 통한 자기 발견, 시각장애 청년의 당면 과제 등의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였고, 둘째 날에는 수상레포츠를 즐기며 서로 친밀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캠프에 참가한 청년들은 “1박 2일 동안 강의도 듣고 레저도 하며 유익함과 즐거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 수상스키로 더위를 물리쳐요!

7월 15일,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팀에서는 시각장애인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허리, 다리, 관절 등을 사용하여 몸의 균형 감각을 깨우고 스피드와 스릴을 통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수상스키 교실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수상스키를 타는 방법과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고 직접 수상스키를 타며 시원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수상스키 교실에 참가한 오씨는 “처음에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물에 몸을 맡기고 강사님께서 알려 주신대로 따라 하니 수상스키만의 스릴과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며 첫 수상스키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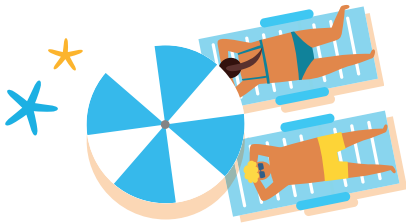




##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2016 시각장애인 여름가족캠프

7월 18일부터 7월 19일, 1박 2일 동안 강원도 속초시에서 2016 시각장애인 여름가족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유대감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이번 캠프에는 시각장애인 11가정이 참가했습니다.

첫 날에는 장사항에서 맨손으로 오징어를 잡아서 시식하고 파워보트에 탑승하는 행사가 진행되었고, 저녁식사 이후에는 각 가정들끼리 친해질 수 있는 가족별 장기자랑, 노래자랑 등 레크리에이션이 이어졌습니다. 둘째 날에는 설악 워터피아로 이동해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 나만의 향수, 석고 방향제 만들기!

지난 8월 6일,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토토 즐(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원데이 클래스가 열렸습니다. 이번 클래스에서는 여름 방학을 맞이한 시각장애인 중, 고등, 대학생이 모여 '나의 향기로운 오후'라는 주제로 나만의 향수와 석고 방향제 만들기를 진행했는데, 총 8명의 시각장애인이 참가한 이번 프로그램은 전직 화장품 회사에서 개발원으로 종사하셨던 강사님과 함께 향수에 대한 유래와 종류, 뿌리는 방법, 석고 방향제의 종류 등 이론 수업과 실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원데이클래스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실습을 통해 직접 석고방향제와 향수를 만들어 볼 수 있어 신기하고 즐거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 시각장애인에게 의자를 권할 때

‘뒤에서 밀거나 앞에서 잡아당기지 마세요’

시각장애인의 손을 의자의 뒷부분에 살짝 대어 주세요. 의자의 위치와 향하고 있는 방향을 알게 되면 어디에서나 자연스럽게 앉을 수 있습니다. 책상과 함께 있는 의자에 앉게 될 경우 한 손은 의자에, 다른 한 손은 책상을 닿게 해주시면 바르게 앉을 수 있습니다.



### |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 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단체인원을 대상으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에서는 시각장애에 대한 교육 및 시각장애 체험을 진행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자원봉사센터, 도서관 등에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 상** 초·중·고등학교 및 사회인

**내 용** 시각장애이해 및 에티켓교육, 한글점자이해, 시각장애체험, 여가·문화체험 등

**진행장소**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진행

**체험시간** 3시간 이내(봉사활동 확인서 발급가능)

**상담·접수** 02-950-0133 박승만

### |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